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다문화가정 학교' 개강

전남대 총동창회장에 선출된 최 상 준 남화토건 대표이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4일 광주 광산구 송정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2009년도 3기 '다문화가정 행복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광주대-공군 제1전투비행단 협약



김혁중(왼쪽) 광주대총장과 양철환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은 4일 오전 광주대 행정관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학술·문화·정보·기술·교육 등의 교류 및 공동발전을 위한 군·학협약을 체결했다.

남화토건 적십자 특별회비 1,500만원 전달



최상욱(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남화토건(주) 회장이 최근 전 직원들이 신빈곤층 구호를 위해 모은 후원금 1천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게 쾌척했다.

하이트맥주 장학금 1천만원 기탁



하이트맥주(대표 김지현)는 4일 광주 서구청에서 전주연 구청장(왼쪽에서 3번째)과 이규연 영업본부장(왼쪽에서 4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20만 동문 네트워크 구축 세계 대학 초석 다질 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을 통해 후배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제19대 총동창회장에 선출된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이사(72·건축공학과 64년 졸업)는 “전국 및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20만 동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남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5만명에 달하는 등록 회원이 10만명 이상 늘릴 수 있도록 ‘동문찾기 운동’을 벌이는 한편 2만부에 달하는 동문회보 발행부수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후배들 지원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

특히 후배들이 경쟁력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물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문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신임회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고,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학사업에도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전남대의 위상 제고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인재육성책도 병행할 계획

이다.

최 신임회장은 “석·박사 과정 600명을 포함해 총 1천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도 진정으로 전남대를 모교로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은 물론 국가에도 보탬이 되는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학사업·외국인 학생 인재육성책도

최 신임회장은 “오는 2012년 개교 60주년 축제 준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 간 협력을 위해 치르고 있는 전남대·조선대·호남대·광주대 등 4개 대학 체육대회에 교육대와 동산대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준 회장은 1964년 전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7년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이후 공과대 동창회장, 경영대학 객원교수,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5일 오후 6시30분 광주 삼우지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민=니름기자 mjna@kwangju.co.kr



“개인적 이득 없지만 운전자에 경각심 보람”

‘중상해 형사처벌 면제’ 위한 이끌어낸 조흥주씨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면제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를 빼내는 수술을 받았다. 입원한 기간만 무려 4개월이었다.

이런 결정이 나오도록 헌법소원을 낸 주인공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조흥주(30)씨다. 그는 4일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으로 개인적 이득은 없지만 사람들이 운전할 때 더 조심하고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도록 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해 12월 퇴원한 뒤 1년간은 매일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통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조씨는 자신이 힘겹게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가해자는 진화 한번 하지 않았다고 섭섭해 했다.

조씨는 “나중에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 승용차에 밝혀 공중으로 봉 뜬 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귀에서 수도꼭지 틀듯 피가 팔팔 났다고 하더라”고 당시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렸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조씨는 17시간 동안 뇌 안에 가득찬 피

결국 그는 퇴원하자마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결국 4년만에 위헌 결정을 받아 냈다. 연남뉴스 ▲송영철씨(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언론인·정치인·환경운동가 바쁜 삶

별세한 이정일 전남일보 회장

4일 별세한 승정(乘精) 이정일(李正一) 전남일보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민권과 환경운동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바쁜 삶을 살았다. 1989년 1월 전남일보를 창간한 고인은 창간 당시 부회장을 맡았다가 사장(1992~1996년)으로 직접 언론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농촌 출신인 고인은 누구보다도 농어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두 번의 국회의원(16대·17대) 임기중 대부분 농수산식품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열악한 전남 농어촌 문제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



1995년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는 고 이정일 회장.

고인은 소외된 이웃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타계 직전까지도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후원의장을 맡아 왔던 이 회장은 연구소가 처음 생겼던 시절 당시의 1년치 월급을 설립 자금으로 흔쾌히 내놓기도 했다. 고인은 학구열도 대단했다. 고려대 언론대학원, 전남대 경영대학원, 고려대 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경남대 북한대학원의 최고교 과정을 차례로 마쳤다. 고인은 또 밀알회 중

양총재, 두성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클럽 900 회장, 한국문학 세계화 추진본부 상임 부총재로도 활동했다.

◇고 이정일 회장 약력
△1947년 전남 해남 출생 △1965년 서울공고 졸업 △1966년 한양대 공대 재학중 미국 유학 △1970년 미국 남가주 우드버리대학 경제학과 수료 △1985년 통일상역 회장 △1986년 조선내화 부사장 △1988년 전남일보 부회장 △1992년 전남일보 사장 △1993년 IPI(국제언론인협회) 한국 위원회 이사 △1994년 UNESCO 한국 위원 △1994년 한국 신문윤리위원회 위원 △1996년 전남일보 회장 △2000년 제16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2004년 제17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확측

- ▲김창준(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임병순씨 장남 성민군 이재욱·김혜숙씨 차녀 예나양=14일(토) 오후 1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그랜드볼룸)
- ▲유전중·박영숙씨 셋째 세환군 김옥환·김수연씨 셋째 유진양=15일(일) 오전 11시50분 웨딩의 전당 금호생명빌딩 30층,(아시아나홀)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양정운) 월례회=5일(목) 오후 6시 금강산 식당. 062-224-0808.
- ▲북성중 제6회 동창회(회장 국성룡) 월례회=6일(금) 오후 6시 목석원. 062-232-5224.
- ▲북성중 영광동문 동창회(회장

동창·동문회

- ▲광주공고 28회 동창회(회장 양인욱) 청림총회=7일(토) 오후 7시 운암동 그랑아시아웨딩홀 5층. 010-3603-4775.
- ▲순천고 칠광회(회장 김문기) 월례회=9일(월) 오후 6시30분 기차집(원불교 맞은편). 062-226-8920.
- ▲진주강서 광주전남 총회(회장 강평원)=7일(토) 오전 11시 광주향교 유림회관. 062-228-3368.
- ▲무등클럽(회장 정종식) 월례회

알림

- ▲미소 경희 한의원 개원=5일 목포시 산전동 178-12 산전동 보건소 사거리·원장 신재성(전 서울 동의가죽한의원장·목포고 27회). 061-273-0776, 0778.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 ▲광주심리상담센터 슬관성 도박

모집

- ▲국단 '청춘' 상반기 신임단원 모집=연극을 하고 싶은 신체 정신 건강함 사람은 누구나 가능.모집 분야는 배우·기획·스텝분야. 모집기간은 10일까지. 062-430-5257, 010-7205-0500.
-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노래교실(화·수·오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 4시). 062-410-5000.
- ▲제1기 예지·다도반 모집=생활예절, 우리옷 바로입기, 인사의 종류와 하는법, 차생활의 임무 등을 배우고 싶으신 분. 교육일시 3월10일(4

부음

- ▲이정일(전남일보 회장)씨 별세 재혁(전남일보 이사)·재욱(대주기